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철저히 옹호보위하기 위한 현명한 령도

김 성 옥

일심단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이며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이며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실현한것은 총결기간 우리 당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이며 업적이라고 총화하시였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며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높이 떨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철저히 옹호보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옹호보위하였다.

일심단결의 위력은 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이고 향도적력량인 당의 강화발전에서 집중적으로 발현된다.

우리 당은 우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에 대한 전당적인 토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6월 19일 당, 국가, 군대, 근로단체,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새롭게 제정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고 반들어온것과 같이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드림없는 신념과 확고한 의지로부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새로 제정하기로 하였다고 하시면서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것을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총적목표로 내세우시였다.

우리 당은 각급 당조직들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접수토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10대원칙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

한 신념으로 만들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10대원칙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우리 당은 또한 당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전당적으로 현대판종파의 여독을 청산하여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심화시켜나갔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벅찬 시기에 당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당이 적중한 시기에 정확한 결심으로 반당반혁명종파일당을 적발속청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백배로 강화되었다.

우리 당은 그후 전당적으로 현대판종파의 여독을 청산하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심화시켜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3(2014)년 7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현대판종파의 해독성과 위험성, 교활성과 악랄성을 다시금 심오히 밝히시고 현대판종파여독을 청산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이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서의 순결성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들고나가야 할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주체105(2016)년 2월초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련합회의 확대회의는 온 사회를 당의 유일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데서 분기점이였다.

회의에서는 우리 당력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아로새기게 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참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련합회의 확대회의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심화시켜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계기로 되었다.

우리 당은 다음으로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옹호보위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킬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불패의 일심단결을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특히 당창건 70돐을 계기로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키고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라선시수해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이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전례 없는 규모에서 진행되여 라선땅에서 로동당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되였다.

당창건 70돐 경축행사들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만방에 시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에서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하시며 우리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이처럼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혁명적당풍으로 하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105(2016)년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휩쓸었던 조국의 북변에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일떠서는 기적적승리가 이룩될수 있었다.

우리 당은 당조직들이 어머니된 심정으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조직들이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 줄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 교양하고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어 인민이 령도자와 뜨거운 정으로 이어지게 하시였다.

주체101(2012)년에 진행된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는 평범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의 자녀들과 나라앞에 죄를 지은 사람의 자녀라고 해도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에서 모범적인 학생들도 차별하지 않고 대표로 참가하여 이 땅의 모든 자식들을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인덕정치, 광복정치의 위대한 견인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새집들이한 창건거리살림집들을 찾으시여 령도자와 인민이 한가정된 혼연일체의 화폭을 펼치시고 사랑의 친필회답서한을 보내주시여 온 사회를 화목한 대가정으로 꾸려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정이 넘치여 이 땅우에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이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을 틀어쥐고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였다.

고생은 일군들이 하고 락은 인민들이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이 일군들에게 내세우는 높은 요구이다.

우리 당이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왔기에 전체 인민은 당을 어머니로 믿고 따르며 필승의 신심에 넘쳐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아들여왔다.

우리 당은 다음으로 계급적지반을 튼튼히 다져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옹호보위하였다.

청년들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각계층의 근로대중은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5대교양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의 일심단결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게 하며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우리의 계급진지, 혁명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는 계급의 전위투사가 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렬사유자녀들과 전사자 및 피살자가족들, 영예군인들과 전쟁로병들을 비롯한 핵심군중의 역할을 높이는데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그들이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받드는데서 언제나 대오의 기수가 되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1월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여 원아들에게 육친적사랑을 부어주시고 그해 10월에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65돐 경축대회를 성대히 마련해주시여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갈 혁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워주시였다.

그리고 해마다 전승절경축행사를 크게 조직하도록 하시고 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쟁로병대포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인민들이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투쟁정신을 계승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청년중시사상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청년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하였다.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과의 사업을 중시하고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으로 키우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로선이며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청년절을 맞으며 청년절경축대회를 성대히 진행하여 청년들을 조선로동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주체103(2014)년 9월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당시) 제4차 초급일군대회를, 주체104(2015)년 5월에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를 진행하여 청년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우리 당의 사상적혈통, 신념의 피를 순결하게 이어받아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전위투사들로 키워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특히 청년동맹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당창건 70돐까지 청년들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여러차례 건설장을 찾으시여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우리 청년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였다.

주체105(2016)년 8월에 진행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하고 영광스러운 력사와 투쟁전통을 이어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시위한 총정의 대회로, 주체의 청년운동의 승리적전진과 청년동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인 대회로 되였다.

우리 당은 오늘의 전인민적총진군에서 혁명성과 조직성이 강하고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로동계급이 주도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수행하도록 하고 조선로동계급에게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었다.

당중앙결사옹위는 조선로동계급의 제일생명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로동계급의 대는 바뀌어도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충실성의 전통, 일심단결의 역사는 영원히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이 전화의 불비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굳은 신념을 안고 전쟁승리를 위하여 굴함없이 투쟁한 군자리와 락원의 로동계급처럼, 천리마대고조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한 강선의 로동계급처럼 언제나 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당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는 적들의 온갖 책동을 예리하게 가려보고 각성있게 대하여 사회주의화원에 자본주의독초의 사소한 싹도 절대로 돌아나지 못하게 하였다.

전사회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도덕과 생활방식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서로 돕고 이끄는 건전하고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의 미풍을 활짝 꽃피워나가도록 하였다.

이처럼 우리 당과 인민은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고 반석같이 다져 정치사상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며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다그쳐나갔다.

수령을 중심으로 전체 인민이 철통같이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오늘 우리 국가와 사회의 정치적안정과 공고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들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주체혁명위업을 완수해나갈것이다.

실마리어 일심단결, 정치사상강국